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에 대한 외국인 어머니 및 교사의 어려움에 관한 연구

김소양<sup>1)</sup>

---

### 요약

---

본 논문은 K시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외국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보육에 대한 어려움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 어머니들은 대부분 어린이집의 보육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언어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하고 있었고 경제적인 도움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에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영유아 및 어머니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어린이집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 소집단중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다문화 가정 유아 학습을 위한 교사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을 설치도 고려해볼 만하며, 다문화 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현직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유아의 보육비를 포함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제어:** 다문화 가정, 어린이집, 보육

---

---

1) 김포대학 사회복지과 부교수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결혼이민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08). 국제결혼(38,291건)의 비율이 전체결혼(총 345,592건)의 11.1%에 달하고, 농촌의 경우 전체결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8).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결혼 이민자 자녀는 2006년 25,000명, 2007년 44,000명, 2008년 58,0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취학 전 연령인 6세 이하 자녀의 수는 33,140명으로 전체 결혼 이민자 자녀의 57.1%를 차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자녀의 과반수이상을 유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특히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의 보고서(2007)에 따르면, 경기도내 국제결혼 건수는 2001년 3,093건(4.5%)에서 2005년 9,962건(13.8%)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국 국제결혼 건수 중 경기도내 국제결혼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20.3%에서 2005년 23.1%로 증가하여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경기도 국제결혼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도내 외국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은 2001년 2,269건에서 2005년 7,34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는 그동안 우리가 등한시해왔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 이에 대한 담론이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다문화에 대한 담론은 지속적으로 이주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이슈화되어 왔으며, 현재 다문화 사회로의 도래를 언급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필요한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인 미국과는 다른 다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다문화주의 관점이 뿌리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미국은 민족단위의 거대한 이민의 물결로 소수민족이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미국이 이주민들의 인권에 초점을 두어 그들의 주거나 재산의 안전, 고용기회의 평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반면 한국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 국가로서 단일혈통, 단일언어, 단일문화를 강조하여 왔으며 이러한 태도는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이해에 어려움을 낳게 하였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들의 인권 침해와 그 자녀들의 소외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겪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를 부각시키고 있다(윤갑정·고은경, 2006).

이러한 이주여성들 자체가 갖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의 증가는 다문화 가정의 유아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들 자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

이 시급한 시점이다.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교육환경을 고찰한 허미화(2008)의 연구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의 교육환경은 첫째 한국어 발달 지체와 관련된 학업부진, 둘째 정체성 혼란과 수치심 및 열등감, 그리고 셋째 빈곤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소외감을 낳을 여지가 큰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제결혼가정은 물론 외국인근로자 가정을 포함하는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한국 정부가 비준한 UN아동권리협약에 있다.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을 인하여 출생 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하며, 특히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약에 의하면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아동은 보편적 인권으로서 ‘사회적·문화적 권리’, 아동의 특별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와 ‘노동이나 경제적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다문화가정 유아 역시 한국사회의 다른 유아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동시에 이들에 대한 권리보장이 한국사회로의 일방적인 동화나 적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분적으로 속해있는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가정 유아가 또래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언어적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정선아, 2009, 재인용). 따라서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보편적인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의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중 외국인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돕는 한국어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에 대해서 교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유아의 교육받을 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 양질의 교육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유아들은 전문적인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정에서 교육의 일차적 제공자인 어머니와의 양질의 교육적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어머니들인 경우 한국어를 사용하여 자녀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정에서부터 교육적 혜택을 받는데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에 대한 어려움이나 요구사항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뿐 만 아니라 개인적인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직접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을 보육하고 있는 교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 또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유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을 시행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일반 유아들의 다문화 이해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지양하는 반편견교육 혹은 국제이해 교육의 일환으로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시하여왔다(정선아, 2009).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의 유아를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경기도 K시의 경우에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언급한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보육의 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K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중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어머니들의 자녀를 중심으로 외국인 어머니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어려움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K시의 보육정책 중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보육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외국인 어머니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은 어떠한가?

둘째, 보육과 관련한 외국인 어머니들의 언어적 어려움과 요구사항은 어떠한가?

셋째, 외국인 어머니들의 일상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은 어떠한가?

넷째,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있어 어린이집의 교사 및 원장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일차적 대상은 K시에 등록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조사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어린이집의 수는 56개 시설이었으며 유아들의 수는 113명이었다.

이상의 56개 시설을 대상으로 외국인 어머니용 질문지와 원장 및 교사용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질문지에 응답한 어머니들의 수는 51명이었으며, 원장 및 교사들의 수는

78명이었다. 또한 면담에 응해준 어머니들의 수는 9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 중 외국인 어머니들로 그 대상을 제한하였다. 질문지에 응답한 어머니들의 인적 배경과 부모의 직업 및 자녀의 연령은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외국인 어머니의 인적배경

단위: f(%)

어머니의 출신국가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	
베트남	10(19.6)				
필리핀	7(13.7)				
일본	5( 9.8)	25세~29세	9(17.6)	중학교 졸업	12(23.5)
중국조선족	19(37.3)	30세~34세	21(41.2)	고등학교 졸업	26(51.0)
중국한족	2( 3.9)	35세~39세	13(25.5)	대학교 졸업	12(23.5)
태국	4( 7.8)	40세 이상	8(15.7)	기타	1( 2.0)
인도네시아	1( 2.0)				
파키스탄	1( 2.0)				
러시아	1( 2.0)				
총계	51(100.0)	총계	51(100.0)	총계	51(100.0)

<표 2> 부모의 직업 및 자녀의 연령

단위: f(%)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자녀의 연령	
회사원(생산직포함)	58(51.3)	전업주부	74(65.5)	만1세 미만	2( 1.8)
자영업	20(17.7)	생산직근로자	22(19.5)	만 1세	16(14.2)
일용직	19(16.8)	일용직근로자	7( 6.2)	만 2세	32(28.3)
농업	2( 1.8)	자영업	6( 5.3)	만 3세	24(21.2)
전문직	6( 5.3)	농업	1( 0.9)	만 4세	21(18.6)
무직	6( 5.3)	전문직	2( 1.8)	만 5세	11( 9.7)
기타	2( 1.8)	기타	1( 0.9)	만6세 이상	7( 6.2)
총계	113(100.0)	총계	113(100.0)	총계	113(100.0)

또한 질문지에 응답한 교사 및 원장들의 인적배경은 <표 3>과 같다.

<표 3> 교사 및 원장의 인적배경

단위: f(%)

직책		연령		교육경력	
교사 원장	54(69.2) 24(30.8)	24세 이하	4( 5.1)	3년 미만	24(30.8)
		25세~29세	27(34.6)	3년~5년 미만	11(14.1)
		30세~34세	11(14.1)	5년~10년 미만	19(24.4)
		35세~39세	9(11.5)	10년 이상	24(30.8)
		40세 이상	27(34.6)		
총계	78(100.0)	총계	78(100.0)	총계	78(100.0)

또한 면담에 응해준 어머니들은 4개의 보육시설에서 총 9명으로, 출신국이 일본 1명, 필리핀 1명, 베트남 1명, 인도네시아 1명, 중국조선족 5명 이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외국인 어머니용 질문지와, 원장 및 교사용 질문지로 두 종류이다. 두 종류의 질문지의 내용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맞는 내용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후, 전문가들과 K시의 보육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외국인 어머니용 질문지의 문항 수는 인적배경에 관한 질문 3문항과 연구문제를 위한 문항 21문항(보육과 관련된 문항 17문항과 한국어에 관한 문항 4문항)으로 총 24문항이며 문항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외국인 어머니용 질문지의 문항 내용

문항의 내용(문항수)		문항수
인적배경	출신국(1), 연령(1), 학력(1)	3
보육관련 문항	보육내용/보육방법/보육환경(6), 의사소통(5), 필요한 도움에 관한 사항(6)	17
한국어 관련 문항	한국어능력 실태 및 개선(4)	4
	총계	24

원장 및 교사용 질문지의 문항 수는 인적배경에 관한 질문 3문항과 연구문제를 위한 문항 14문항으로 총 17문항이며 문항의 내용은 <표 5>와 같다.

&lt;표 5&gt; 교사 및 원장용 질문지의 문항 내용

문항의 내용(문항수)		문항수
인적배경	직책(1), 연령(1), 경력(1)	3
보육관련 문항	보육의 어려움(4), 의사소통(5), 다문화교육(2),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3)	14
총계		17

### 3. 연구절차

#### 가. 보육시설별 다문화 가정 유아의 실태 조사

본 연구의 일차적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시의 보육업무 담당자와의 미팅을 통해 보육시설별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의 재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요청을 K시에 등록된 각 어린이집에 하였다. 2009년 4월 초부터 각 시설별로 요청을 하기 시작하여 최종 실태조사 자료는 5월 말까지 수합되었다.

#### 나. 어머니용 질문지와 교사 및 원장용 질문지 작성

2009년 6월에서 7월 초까지 질문지의 문항을 작성하고 전문가와의 협의 및 K시의 보육업무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쳐 질문지의 문항을 최종 결정하였다.

#### 다. 질문지의 배부 및 회수

2009년 7월 중순에 질문지를 일차로 배부하였으나 회수율이 낮아, 2009년 8월에 이차로 질문지를 재 배부하였다. 질문지의 회수는 9월 초까지 계속되었다. 어머니용 질문지의 회수율은 46.9%였으며, 교사 및 원장용 질문지의 회수율은 69.6%였다.

외국인 어머니들의 언어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어머니들의 응답과정에 아버지들의 도움을 강력히 요청하는 편지를 질문지와 함께 동봉하였다.

#### 라. 어머니들과의 면담

외국인 어머니들과의 면담은 몇몇 어린이집의 원장들에게 부탁을 하여 면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어머니들을 개별적으로 소개받아 어머니들이 편한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면담을 하였다. 면담은 2009년 8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머니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3명은 집단 면담을 하였으며, 6명은 개별 면담을

하였다. 면담 시간은 일인당 한 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 마. 자료분석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어머니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외국인 어머니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 가. 어린이집의 보육내용, 보육방법, 보육환경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어머니들한테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지내는지 아는가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하는 활동에 만족하는가를 질문하여 보육내용에 대한 인지도 및 보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보육내용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인지도	f(%)	만족도	f(%)
알고 있다	44(86.3)	만족한다	46(90.2)
모른다	5(9.8)	그저 그렇다	2(3.9)
무응답	2(3.9)	무응답	3(5.9)
합계	51(100.0)	합계	51(100.0)

<표 6>에서와 같이 86.3%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보육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90.2%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의 보육내용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보육내용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어머니들한테 어린이집의 교사가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와 어린이집의 교사가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만족하는가를 질문하여 보육방법에 대한 인지도 및 보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보육방법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인지도	f(%)	만족도	f(%)
알고 있다	39(76.5)	만족한다	41(80.4)
모른다	12(23.5)	그저 그렇다	2(3.9)
		무응답	8(15.7)
합계	51(100.0)	합계	51(100.0)

<표 7>과 같이 어머니들의 76.5%가 교사가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보육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80.4%의 어머니들이 교사가 자녀를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보육방법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한테 어린이집의 시설과 환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아는가와 어린이집의 시설과 환경에 대해 만족하는가를 질문하여 보육환경에 대한 인지도 및 보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보육환경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인지도	f(%)	만족도	f(%)
알고 있다	44(86.3)	만족한다	45(88.2)
모른다	7(13.7)	그저그렇다	2(3.9)
		무응답	4(7.8)
합계	51(100.0)	합계	51(100.0)

<표 8>과 같이 86.3%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의 시설과 환경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88.2%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함으로써 보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어린이집과의 의사소통의 실태

어머니들한테 어린이집과 전화, 메모, 방문 등의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여 의사소통의 실태를 알아본 결과와, 의사소통을 잘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어린이집과의 의사소통 실태 및 의사소통이 안되는 이유

의사소통실태	f(%)	의사소통이 안되는 이유	f(%)
잘하고 있다	41(80.4)	언어적 어려움	14(77.8)
잘못하고 있다	10(19.6)	문화적 차이	2(11.1)
		양육태도에 대한 가치관차이	1(5.6)
		기타	1(5.6)
합계	51(100.0)	합계	18(100.0)

<표 9>와 같이 80.4%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무응답을 제외한 응답 결과를 보면, 응답수의 77.8%가 언어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의사소통의 방해요인이 언어적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어머니들한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어린이집과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질문하여 의사소통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와 어린이집의 교사나 원장과 자녀에 대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상담의 주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어린이집과의 의사소통 빈도, 상담 유무, 상담 내용

의사소통 빈도	f(%)	상담 유무	f(%)	상담내용	f(%)
거의 매일	11(21.6)	있다	32(72.5)	자녀의 적응문제	21(33.9)
주 3~4 번	3( 5.9)			자녀의 학습능력	10(16.1)
주 1~2 번	23(45.1)	없다	14(27.5)	자녀의 친구관계	19(30.6)
거의 안한다	14(27.5)			자녀의 언어능력	12(19.4)
합계	51(100.0)	합계	51(100.0)	합계	62(100.0)

<표 10>에서 어머니들이 어린이집과 의사소통하는 빈도는 ‘일주일에 한두번’이 45.1%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안한다’가 27.5%, ‘거의 매일’이 21.6%로 나타났다. 또한 72.5%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한테 상담을 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어린이집과의 상담내용에 대해, 중다반응의 내용을 포함하고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를 보면, 응답수의 33.9%는 ‘자녀의 적응문제’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6%가 ‘자녀의 친구문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녀의 언어능력’(19.4%), ‘자녀의 학습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다. 필요한 도움에 관한 사항

어머니들한테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를 질문한 결과와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자녀양육에 대해 교육받은 경험 및 도움 받고 싶은 기관

교육수혜 경험	f(%)	도움받고 싶은 기관	f(%)
있다 없다	10(19.6) 41(80.4)	국가	20(39.2)
		시	12(23.5)
		지역사회	9(17.6)
		어린이집	5( 9.8)
		기타	4( 7.8)
무응답	1( 2.0)		
합계	51(100.0)	합계	51(100.0)

<표 11>과 같이 어머니들의 80.4%가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은 국가가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39.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시(23.5%), 지역사회(17.6%), 어린이집(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응답 범주 중 '기타'의 경우는 어린이집과 시 또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함께 도와야한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어머니들한테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현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K시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와 K시에서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거주시에서 도움 받고 있는 것과 도움 받고 싶은 것

도움받고있는 것	f(%)	도움 받고 싶은 것	f(%)
있다 없다	19(37.3) 32(62.7)	어머니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9(17.6)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13(25.5)
		경제적인 지원	22(43.1)
		기타	7(13.7)
합계	51(100.0)	합계	51(100.0)

<표 12>와 같이 K시에서 도움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 62.7%의 어머니들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37.3%의 어머니들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위의 응답 범주 중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15명의 어머니들이 응답을 했는데, 12명(응답수의 80.0%)의 어머니들은 ‘동사무소에서 받는 저소득층 보육비 지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명의 어머니는 ‘시청에서 하는 한국어 공부’라고 응답하였고, 1명의 어머니는 ‘보건소 및 양육비’라고 응답하였으며, 1명의 어머니는 ‘편지자료’라고 응답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한편 어머니들은 K시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할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43.1%로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이 ‘자녀의 어려움 해결 위한 프로그램’(25.5%)이었고 그 다음이 ‘어머니의 어려움 해결 위한 프로그램’(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응답 범주 중 ‘기타’라고 응답한 경우 7명의 어머니들이 응답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녀의 어려움 해결과 경제적인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3명(응답수의 42.9%)이었으며, ‘어머니의 어려움 해결과 경제적인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1명이었다. 또한 ‘가정 방문 선생님이 자녀의 학습지도를 해주길 바란다’고 응답한 어머니가 1명, ‘한 달에 한번 엄마와 함께 수업하기’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1명, 그리고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전문가의 언어교육’이라고 응답한 어머니가 1명이었다.

어머니들한테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와 어린이집에서 도움을 준다면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어린이집에서 도움받고 있는 것과 도움받고 싶은 것

도움받고 있는 것	f(%)	도움받고 싶은 것	f(%)
있다	20(39.2)	한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	10(16.7)
없다	28(54.9)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8(13.3)
무응답	3( 5.9)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18(30.0)
		자녀양육 지식을 위한 프로그램	24(40.0)
합계	51(100.0)	합계	60(100.0)

<표 13>과 같이 54.9%의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 도움받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응

답하였으며, 39.2%는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위의 응답 범주 중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그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 14명의 어머니들이 응답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6명(응답수의 42.9%)의 어머니는 ‘언어적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21.4%)의 어머니는 ‘상담을 해준다’고 응답하였고, 그 외에 ‘전화를 해준다’, ‘병원갈 때 도와주었다’, ‘부모교육 특강을 받았다’, ‘원장님이 직접 아이의 등원과 하원을 해주신다’, ‘생활습관’ 등의 응답을 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서 도움받고 싶은 것에 대해 중다반응을 포함하고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를 보면, 응답수의 40.0%가 ‘자녀양육 지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 프로그램’(30.0%)이었다.

## 2. 보육과 관련된 외국인 어머니들의 언어적 어려움과 요구사항

어머니들한테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와 자신의 한국어 능력 중 향상시켜야 할 영역을 질문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및 향상시켜야 할 한국어 영역

한국어 능력	f(%)	개선할 영역	f(%)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잘한다	12(23.5)	듣기/ 말하기	8(15.7)
듣기, 말하기는 잘하나 읽기, 쓰기를 잘 못한다	22(43.1)	읽기/ 쓰기	16(31.4)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조금밖에 못한다	13(25.5)	모두 다	23(45.1)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거의 못한다	2(3.9)	무응답	4(7.8)
기타/ 무응답	2(3.9)		
합계	51(100.0)	합계	51(100.0)

<표 14>와 같이 어머니들이 한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듣기와 말하기는 잘하나 읽기와 쓰기를 잘못한다’로 43.1%를 차지하였으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조금밖에 못한다’가 25.5%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비율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잘한다’도 23.5%를 차지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자신이 향상시켜야 할 한국어 영역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 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읽기 및 쓰기(31.4%)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들한테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이해하는가와

자녀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한국어로 설명하는 능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15> 가정통신문의 이해정도 및 한국어 설명 능력

가정통신문의 이해력	f(%)	한국어 설명 능력	f(%)
이해한다	23(45.1)	대체로 가능하다	33(64.7)
약간 이해한다	22(43.1)	약간은 가능하나 힘들다	14(27.5)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	5(9.8)	불가능하다	2(3.9)
무응답	1(2.0)	무응답	2(3.9)
합계	51(100.0)	합계	51(100.0)

<표 15>와 같이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45.1%가 ‘이해한다’로 응답하였으나, 43.1%는 ‘약간 이해한다’, 9.8%는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로 응답함으로써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64.7%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한국어로 설명이 ‘대체로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27.5%는 ‘약간은 가능하나 힘들다’, 3.9%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여전히 한국어 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 3. 외국인 어머니들의 일상적인 어려움과 요구사항

어머니들과 면접을 할 때 질문한 내용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 개인적으로 생활을 할 때 어려운 점등을 질문하였고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 등을 질문하여 어머니들의 생각을 알아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지를 질문하였다.

#### 가.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

어머니들과 면담을 하면서 느낀 점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가 거의 없는 중국조선족 출신의 어머니들은 다른 나라 출신의 어머니들과 비교해볼 때 다른 문제도 상대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동남아 출신의 어머니들은 외모로 인해 자신이 외국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였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한국어 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외모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인도네시아 출신의 어머니는 비록 한국국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강하게 토로하였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차별받는 느낌도 싫지만 자녀들이 어머니 때문에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어 상처를 받을까 봐 무척 걱정하는 것 같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 어머니는 한국인들이 이제는 어차피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일본 출신의 어머니는 자신의 큰 아이가 학교에서 일본강점기에 대해 배우면서 아이의 주변 친구들이 일본사람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말을 해서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은 점이 가장 힘들다고 했다. 아이는 그동안 일본말도 자신으로부터 잘 배워 잘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일본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은 아이를 데리고 자주 일본에 가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한 중국조선족 출신의 어머니도 아이가 나중에 엄마가 외국인출신라는 이유로 따돌림당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앞으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리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한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완전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하소연하였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자신이 머리로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자녀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자신을 때린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자신은 어머니로서의 권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고 서러운 점이라고 울먹였다. 더욱이 남편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말리거나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자녀에게 줄 수 없는 점들을 아빠가 보충해주고, 예를 들면 퇴근 후에 아이들과 놀아주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자신의 어머니로서 가져야 할 권위를 세워주는데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의 공부를 잘 가르쳐줄 수 없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영어나 컴퓨터 같은 것을 아이가 물어볼 때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

지만 어떤 교육을 어디에서 받는지도 잘 모르니까, 이러한 요구를 어린이집에서 해결 해주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아마도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그 어떤 다른 기관보다도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았다.

또한 중국 조선족 출신의 어머니는 남편과의 양육방식의 차이가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하였다.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아이를 때리기도 하며, 자녀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아이와 상호작용도 없으며, 남편은 밖에서 돈만 벌어서 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 어머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어린이집에서는 남편에게 양육방법 지식 교육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하였다. 이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직접적인 도움이나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 같았다.

#### 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은 없다고 하였다.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잘해준다고 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나타내었다.

인도네시아 출신 어머니는 어린이집에 대해 매우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었다.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었으며, 견학비용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처럼 저소득층 가정의 지원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받는다는 생각보다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많은 수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나 어린이집에서 자녀에게 공부를 더 많이 가르쳐주길 원했다. 특히 한글을 아이가 완전하게 잘 배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도 이것은 한글뿐 만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르치기 어려운 점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더 많은 교육적 혜택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개인적 생활에서 어려운 점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개인적 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문화적 차이라고 하였다.

중국조선족 출신의 한 어머니는 사고방식의 차이, 습관의 차이, 음식의 차이가 개인적으로 힘들지만 미리 예상했던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중국조선족 출신 어머니도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의 예절이라든가 한국의

풍습에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제사를 지내거나 음식하기 특히 명절 때 음식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면서 한국 음식을 잘못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또 다른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음식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구박할 때는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 출신의 어머니는 한국과 일본의 남편 문화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였다. 한국에서는 남편은 하늘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남편이랑 얘기할 때면 남편이 아니라 할아버지랑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면서 한국 남편은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는 개인적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으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언급하였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가정부로 생각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남편을 애기 취급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맨날 싸우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였다.

문화적 차이 외에 개인적 생활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인도네시아 출신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집을 빨리 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본인이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다. 또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이 본인의 출신국보다 한국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기후와 의료제도 및 교육제도 등이 좋다고 하였다. 어린이집의 교육 여건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그러나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는 남편도 장애가 있는데다가 어머니까지 요양원에 있기 때문에 요양비를 대야하므로 돈이 많이 들어서 가족들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하였다.

## 라. 자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

자녀의 장래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에 대해 3명의 어머니들은 안정된 직장이 있는 사람을, 2명의 어머니들은 건강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언급했으며, 1명의 어머니는 올바르게 착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3명의 어머니들은 다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이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체험함으로써 깨달은 생각으로, 자신의 자녀는 훗날 이러한 구성원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 4.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 가.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의 어려움

교사 및 원장들에게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어려움은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시 어려움의 유무 및 어려움의 요인

어려움의 유무	f(%)	영유아보육시 어려움의 요인	f(%)
있다	33(42.3)	영유아 자체의 문제	8(22.2)
없다	45(57.7)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	16(44.4)
		두 가지 다	12(33.3)
합계	78(100.0)	합계	36(100.0)

<표 16>과 같이 교사 및 원장들의 42.3%는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보육할 때 어려움의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하여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를 보면, 응답수의 44.4%는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로 가장 많았으며, ‘영유아 자체의 문제’는 22.2%였고, ‘어머니와 영유아 둘다 관련된 문제’는 33.3%로 나타났다.

교사 및 원장들에게 영유아와 관련된 어려움 및 어머니와 관련된 어려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영유아와 관련된 어려움 및 어머니와 관련된 어려움

영유아와 관련된 어려움	f(%)	어머니와 관련된 어려움	f(%)
발달적 지체	3( 9.7)	언어적 의사소통	26(56.5)
학습능력 저하	9(29.0)	문화적 차이	8(17.4)
문제행동 야기	3( 9.7)	양육지식의 부족	10(21.7)
영유아와의 의사소통	15(48.4)	기타	2( 4.3)
기타	1( 3.2)		
합계	31(100.0)	합계	46(100.0)

<표 17>에서 중다반응을 포함하고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를 보았을 때, 교사 및 원장들이 응답한 영유아와 관련된 요인에 대한 응답 수 중 48.4%가 ‘영유아와의 의사소

통'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습능력 저하'가 29.0%, '발달적 지체'와 '문제행동 야기'가 각각 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응답 범주 중 '기타'의 경우는 '편식 지도'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어머니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교사 및 원장이 응답한 응답수의 56.5%가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양육지식의 부족'으로 21.7%, '문화적 차이'가 17.4%의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응답 범주 중 '기타'의 경우는 '편식문제'와 '건강문제'로 나타났다.

### 나. 외국인 어머니들과의 의사소통 실태

교사 및 원장들에게 어머니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어머니들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어머니들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 18>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실태, 의사소통 빈도, 의사소통이 안되는 이유

의사소통 실태	f(%)	의사소통 빈도	f(%)	의사소통이 안되는이유	f(%)
잘되고 있는편	46(59.0)	거의 매일	19(24.4)	언어적 어려움	26(72.2)
잘 안되고 있다	27(34.6)	주 3~4번	10(12.8)		
무응답	5( 6.4)	주 1~2번	35(44.9)	기타/ 문화적 차이	4(11.1)
		거의 안한다	11(14.1)		
		무응답	3( 3.8)		
합계	78(100.0)	합계	78(100.0)	합계	36(100.0)

<표 18>과 같이 교사 및 원장들의 59.0%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는 편이다'고 하였으며, 34.6%가 '잘 안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교사 및 원장들의 44.9%가 '일주일에 1~2번'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거의 매일'이 24.4%, '거의 안한다'도 14.1%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중다반응을 포함하고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를 보면, 응답수의 72.2%가 '언어적 어려움'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육태도에 관한 가치관의 차이'가 16.7%, '문화적 차이'가 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및 원장들에게 어머니들과 유아에 대한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가와 어머니와의 상담내용은 주로 무엇인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 어머니와의 상담 유무 및 상담 내용

상담 유무	f(%)	상담 내용	f(%)
있다	54(69.2)	유아의 적응문제	34(40.5)
		유아의 학습능력	14(16.7)
없다	23(29.5)	유아의 친구관계	18(21.4)
무응답	1( 1.3)	유아의 언어능력	12(14.3)
		기타	6( 7.1)
합계	78(100.0)	합계	84(100.0)

<표 19>와 같이 교사 및 원장들은 69.2%가 어머니와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와의 상담 내용에 대한 응답에서 중다반응을 포함하고 무응답을 제외한 결과를 보았을 때, 응답수의 40.5%가 ‘유아의 적응문제’로 가장 많았고, ‘유아의 친구관계’가 21.4%, ‘유아의 학습능력’이 16.7%, ‘유아의 언어능력’이 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에 대한 응답 범주 중 ‘기타’의 경우는 2명이 ‘어머니와 자녀와의 의사소통 문제’라고 하였고, ‘편식문제’, ‘배변훈련문제’, ‘유아의 발달문제 및 전달사항’, ‘유아 생활 및 육아정보’라고 각각 1명씩 응답하였다.

#### 다. 다문화 교육에 관한 의견

교사 및 원장들에게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와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 다문화 교육을 받은 경험

다문화 교육 수혜 유무	f(%)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f(%)
있다	10(12.8)	필요하다	68(87.2)
		필요하지 않다	9(11.5)
없다	68(87.2)	무응답	1( 1.3)
합계	78(100.0)	합계	78(100.0)

<표 20>과 같이 교사 및 원장들은 87.2%가 다문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 및 원장들의 87.2%가 교사를 위한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교사 및 원장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와 다문화 가정의 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험 및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

실시한 경험	f(%)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	f(%)
있다	4( 5.1)	어머니 한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	33(30.0)
		어머니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21(19.1)
없다	73(93.6)	유아 언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18(16.4)
무응답	1( 1.3)	어머니 자녀양육지식습득프로그램	37(33.6)
		기타	1( 0.9)
합계	78(100.0)	합계	110(100.0)

<표 21>과 같이 교사 및 원장들은 93.6%가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서 제공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응답 범주 중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해보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다문화 부모 참여수업’이 3명, 그리고 ‘다문화 프로젝트’라고 응답한 경우가 1명이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해야할 프로그램에 대해 중다반응을 포함한 결과를 보면, ‘어머니의 자녀양육 지식 습득 프로그램’이 응답수의 33.6%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30.0%, ‘어머니의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이 19.1%, ‘유아의 언어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범주 중 ‘기타’의 의견은 ‘지역마다 여성회관 등에서 언어교육을 받고 있지만 소수 국가의 여성은 그 틈에서도 소외감을 느껴 교육을 받다가 포기하므로, 여건이 된다면 유아 한글 학습지 선생님을 가정으로 파견하는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또는 각 아파트마다 공부방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었다.

교사 및 원장들에게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더 잘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표 22>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시 필요한 것

응답 범주	f(%)
가정에 대한 물질적 지원	9( 8.1)
어머니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44(40.0)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41(37.3)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배려	12(10.9)
기타	4( 3.6)
합계	110(100.0)

<표 22>에서 중다반응을 포함한 결과를 보았을 때,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더 잘 보육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교사 및 원장들이 한 응답수의 40.0%가 ‘어머니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으로 37.3%를 차지하였다. 또한 ‘유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10.9%, ‘가정에 대한 물질적 지원’이 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의 응답 범주 중 ‘기타’의 경우 ‘또래 엄마들과의 교류 모임 및 교제의 시간’이라는 응답이 2명, ‘경제적 지원’과 ‘한국문화 적응’이라는 응답을 각각 1명씩 하였다.

## I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결과 분석 순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외국인 어머니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 1) 보육내용, 보육방법, 보육환경에 대하여

본 연구 대상의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보육내용과 보육방법, 보육환경에 대해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에 대해 매우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보육비를 지원받는 저소득층의 어머니들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머니들은 경제

적인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에 대해 정서적으로 큰 위안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자녀를 돌봐주고 교육을 해주는 어린이집의 교사 및 원장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 2) 어린이집과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어린이집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하였으며, 의사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은 그 이유를 대부분 언어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4분의 3정도의 어머니들은 일주일에 한 두 번이나 거의 매일 어린이집과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여 바람직하게 보이나,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어머니들도 4분의 1이상이 있어서 이들의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4분의 3정도의 어머니들은 자녀의 문제로 상담을 해 본적이 있다고 함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 어머니들의 경우는 보육시설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들의 상담내용은 주로 자녀의 적응문제와 친구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언어 발달과 학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머니들이 염려하지 않을까 예측하였으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언어와 학습적인 측면보다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자녀의 행동적인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3) 필요한 도움에 대하여

40% 가까이 어머니들은 K시와 어린이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도움의 내용에 대해 K시에서는 보육비 지원을, 어린이집에서는 언어적 도움과 상담 등을 언급하였다.

어머니들은 K시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것에 대해 경제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 어린이집에 도움을 받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자녀양육을 위한 지식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원했다. 또한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에 대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K시에서는 어머니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어린이집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사해주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을 위한 양육지식에 대한 부모교육 외에도, 최근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을 위해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유아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도 필요하지만, 부모참여 프로그램에서 단일주제로 다문화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차춘희, 2006). 다문화에 대한 유아들의 사고나 행동에의 변화와 적응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 외에 일반 가정에서 부모의 반편견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부모참여모임에서 다문화의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각도로 이해하도록 도우면 궁극적으로는 유아들의 사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일반 가정 어머니들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부모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 나. 외국인 어머니들의 언어적 어려움 및 요구사항

연구대상 외국인 어머니들의 4분의 3정도가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며,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더 향상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들의 50% 가까이는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30%정도는 자녀의 행동을 한국어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논의한 어린이집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어머니들의 이유가 언어적 어려움이라고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어머니들의 언어적 문제를 해결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언어적 어려움은 자녀와의 소통과 학습적 지지를 포함한 어머니로서의 권위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여성 이민자들의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적 지원 실태를 초등학교를 통해 조사한 조혜영 등(2007)의 연구는 유아들 대상의 자녀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다수 국제결혼 가정 어머니의 특징은 자녀와 한국어 대화가 서툴기 때문에 엄마의 권한이 미약하고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들게 되며, 가정에서 숙제 및 학업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비공식적인 한국적 관행에 낯설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를 어려워하며, 자녀가 의사전달을 돕기 위하여 교사와 어머니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유아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많은 수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2010년대부터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당장의 희생자는 국제결혼아동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전반에 불안과 갈등을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국제결혼가정 어머니들의 문제점과 언어적 어려움을 일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 다. 외국인 어머니들의 일상적인 어려움 및 요구사항

본 연구의 결과와 어머니들의 면담을 통해서 얻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의 어려움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문화차이에 대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의 실태조사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은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조기교육에 관심이 매우 높아 경제적인 여건만 허락된다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자신과 자녀가 차별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으며, 실제적으로 가족 내에서 조차 기타 가족들에 의해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 한국사회가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사회의 단일민족 통념은 급속히 해체되고 있지만 아직도 혼혈인에 대한 사회, 문화적 차별과 편견에는 큰 변화가 없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사고에 대한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유아기부터의 풍성한 다문화적 경험만이 기존의 왜곡과 차별의 벽을 허물고 세계 여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한 자각과 평등한 시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정지현, 2006)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강소영(200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적 배려(multicultural caring)를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도 그들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적절한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의 문화적 차이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진정한 배려는 주체성 중심의 다문화적 배려(identity-centered multicultural caring)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의 장점을 살려 이 사회에서 보다 더 능력있는 재원으로 교육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 대한 노력들이 시급하다.

## 라. 어린이집 교사 및 원장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

### 1)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보육의 어려움

교사 및 원장들의 50% 이상은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였으나 40%이상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은 어머니와 관련된 것으로 특히 언어적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영유아와 관련된 어려움의 요인도 영유아와의 의사소통이 가장 많은 이유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들이 응답한 자신의 한국어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일상적이 어려움에 대한 면담 결과에서도 일관성 있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언어적 문제가 자녀의 언어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언어적 요인이 가정과 기관과의 소통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외국인 어머니들이 갖는 어려움의 일차적인 문제는 언어적인 문제로서 이것을 신속히 해결해줄 수 있는 보다 치밀한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60%정도의 교사 및 원장들은 어머니들과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고 하였으며,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고 한 교사 및 원장들은 언어적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똑같은 질문에 대한 어머니들의 응답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어머니들보다는 교사 및 원장들은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의사소통의 빈도에 대하여 교사 및 원장의 절반 가까이가 일주일에 한두 번 한다고 하였으며, 4분의 3정도는 거의 매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과의 견해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머니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은 같으나, 그 다음으로는 거의 안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및 원장들이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교사 및 원장들은 어머니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빈번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70% 정도의 교사 및 원장들은 어머니와의 상담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상담내용은 영유아의 적응문제와 친구관계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언급한 상담내용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의 적응문제와 친구관계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된다.

### 3) 다문화 교육에 대하여

대부분의 교사 및 원장들은 다문화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는 교사가 자신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행동은 아동의 태도와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아이들의 요구에 맞게 반응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었다. 미국에서는 인종, 문화, 사회계층, 언어적으로 다양한 아이들을 학업적, 개인적으로 성취하도록 교육하기 위해 교사들을 효과적으로 준비시켜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다문화교육을 위해 교사들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지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한석실, 2006).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분야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태도와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장인실, 2003).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프로그램 속에서 교사들이 보이는 수용적 태도는 학생들의 지각을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필요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들이 문화적 특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략과 내용들을 도입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의 학문적 성취, 개인의 발달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함을 요구하는 것이다(한석실, 2006). 다문화교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문화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보육교사 및 시설장의 재교육 프로그램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과목이 추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4) 다문화 가정 지원에 대하여

거의 모든 교사 및 원장들은 어린이집에서 어머니들에게 도움을 준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이 어린이집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한 결과와는 좀 다른 것으로, 어머니들의 40% 가까이는 어린이집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도움의 내용으로는 언어적 도움과 상담을 많이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교육적 서비스에 대해 어머니들은 고마운 마음을 갖기 때문으

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거의 모든 교사 및 원장들은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지원해야 할 것으로는 어머니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각을 반영하듯 어린이집에서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으로는 어머니의 자녀양육지식 습득 프로그램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 및 원장들은 어머니를 위한 자녀양육 및 언어 교육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어린이집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은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이라는 점은 같으나 교사와는 달리, 그 다음으로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을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교사들은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교육적 이해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 어머니들은 자신의 양육지식의 부족과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녀의 언어능력이 뒤쳐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 같다. 이것은 어머니들과의 면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는데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들인 경우에 자녀의 한글을 잘 가르쳐주지 못함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어린이집에서는 자녀양육에 대한 전문적 부모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제언

### 1)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K시의 보육정책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어머니의 언어적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은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소그룹으로 제공하는 도움을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대집단의 한국어 강좌와 같은 프로그램이 아닌 개별적인 요구에 따른 적절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어린이집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한국어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도 어머니들의 듣기·말하기와 읽기·쓰기 능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인력과 비용을 지원해야하며, 이러한 어린이

집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어린이집을 활용한 소집단중심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어머니들에게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프로그램도 매우 필요하다. 어머니들은 각각의 한국어 능력도 다르고 대집단 강의를 듣는 것에 대해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국가의 여성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욕구에 따른 개별 또는 소집단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참여도가 높을 것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서 제공해주고 이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게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 가정 영유아 학급을 위한 교사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가 학급에 있는 경우 교사들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영유아와의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일반 영유아들만 가르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배려를 어머니와 영유아에게 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자칫 소홀하면 영유아와 어머니에게 교육적 소외감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있는 학급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교사 인력 지원을 제안한다.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은 모국어와 한국어를 어느 정도 유창하게 쓸 수 있는 외국인 어머니를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다문화특성화 보육시설을 제안한다.

김용미의 연구(2009)에 의하면, 다문화 가족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제안을 K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특성화하는 보육시설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또한 대상 가정에게는 보육료를 지원한다면 좋을 것이다. 다문화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료 지원 사실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이용률을 끌어올리고, 다문화 영유아에게 우선적 입소자격을 주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이 시설의 경우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 한국어 중점 교육, 이중 언어 교육 등을 특성화하여 포함시키고 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특성화와 관련된 교재, 교구 개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어머니들을 위해서는 유료 또는 자원봉사자를 통한 통역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소 전 설명회나 상담을 통해 사전교육을 실시한다면 보육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출신국어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 육아상담을 활성화하면 자녀발달에 대한 지식과 육아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에 대한 보육교사 현직교육이 필요하다.

보육교사들이 다문화 가정 영유아들을 좀 더 잘 보육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지식적 그리고 문화적 한계로 인해 교사의 전문적 교수전략의 부재와 교수매체의 부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K시 보육교사연합회의 보수교육시 다문화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교수매체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이것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영유아를 위한 현재의 다문화 교육과정이나 보육과정은 다문화가정의 모든 영유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성공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영유아들이 통합되었는가에 따라 보육과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다문화교육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보육과정 상의 영역과 생활주제와 통합하여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특정 시기에 특정 주제만으로 다문화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간 교육활동의 전체적인 흐름과 보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전체적인 생활영역 및 모든 발달 영역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예비교사교육이나 현직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보육비 지원을 해야 한다.

어머니가 한국어로 자녀와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영아기 때부터 언어적 자극을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자녀가 영아기 때부터 적절한 언어적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게 보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문화 가정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어머니를 위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의 비용 지원, 영유아의 보육비 지원 외에 어머니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비용 등 자녀양육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준다.

여덟째, K시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

K시에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 3월에 발행된 가족사업안내(www.mw.go.kr)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11개소 시범운영)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

적 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지도사(한글 및 아동양육 지도사)를 양성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

아홉째,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영유아의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2009)의 가족사업안내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지원 부문에서는 보건소,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학교,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및 자녀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와 어머니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일차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열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머니들과의 면담으로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는 다른 인종이나 혼혈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속도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의 의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방자치적, 지역사회적인 홍보와 계몽을 통해 이러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이들의 장점을 살리고 수용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기부터의 풍성한 다문화적 경험만이 기존의 왜곡과 차별의 벽을 허물고 세계 여러 지역뿐 만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한 자각과 평등한 시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경기도 K시의 다문화 가정의 보육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이 K시에 제한되어 있다.

또한 본 질문지에 응답한 어머니들의 자녀의 연령이 2세 이하의 영아와 3세 이상의 유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들의 어려움이나 요구사항 등이 어떻게 다른지를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소영(2006). 다문화적 배려 이론. 육아지원연구, 1(1). 5-24.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2007). 경기도내 국제결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2009). 다문화 가정의 강점을 살리는 교육 강화된다- 「'09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수립. 보도자료(2009년 7월 21일).
- 김용미(2009).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25-145.
- 법무부(2008). 법무부 보도자료. 2007년도 출·입국자 4천만 명 육박!-법무부. 2007년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발표.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브리핑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9 가족사업안내. www.mw.go.kr
- 여성가족부(2007).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향후 추진계획. 보도자료.
- 윤갑정·고은경(2006).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의 한국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2). 147-168.
- 장인실(2003). 다문화교육이 한국교사교육과정 개혁에 주는 시사점. 교육과정연구, 21(3). 409-431.
- 정선아(2009).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9(1). 279-298.
- 정지현(2006). 유아 다문화 교육의 박물관 전시 활용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26(3). 243-270.
-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차춘희(2006). 다문화시대 신세대 부모참여프로그램 운영의 실제와 방향. 다문화시대 현장유아교육운영의 과제와 방향. 미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03-123.
- 통계청(2007). 출입국관리현황자료. 2007년 등록 외국인 현황. www.index.go.kr/egams.
- 한석실(2006). 다문화시대 유아교사교육의 방향. 다문화시대 현장유아교육운영의 과제와 방향. 미래유아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67-94.
- 허미화(2008).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와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교육환경 고찰. 유아교육연구, 28(1). 265-281.

- 논문접수 2010년 9월 24일 / 수정본 접수 11월 22일 / 게재 승인 12월 20일
- 교신처: 김소영, 김포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E 메일 ksyang@kimpo.ac.kr

## ABSTRACT

### The Difficultie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 about Child Care and Education

Kim, So Yang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iculties and needs of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whose children attended in child care centers at K city. Also the difficulties and needs of teachers in child care centers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like this: Most of mothers mentioned the difficulties of korean language and they needed the economic supports and to get a knowledg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almost teachers mentioned the need of support and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e several implicational suggestions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nd small group meeting is essential for mothers in multicultural families whose children attended in child care centers. And the parent education for mothers is needed to get a knowledg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teacher support program in the class is also needed. The multicultural family-centered child care center is recommendable and the teacher training program should includ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The economic support policy, community network and the shift of thinking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are also needed.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child care centers, care and education, educate